

# Nietzsche 哲學의 現代的 照明\*

金 保 謙

黃昏이 짙어질 무렵 奧地利 Wien의 Karlenberg 언덕에서 市街를 내려다 볼 때 모든 建物이나 많은 寺院들의 뾰족한 탑들이 어둠에 잠기어 버리는데, 오직 聖 Stephan 寺院<sup>1)</sup>의 탑만이 漸漸 높이 솟아오름을 볼 수가 있다.

마치 이와도 같이 時間과 空間의 距離를 달리하면 할수록 그의 偉大性이 浮刻되는 孤獨한 Nietzsche — 當時에는 社會各層으로부터 冷待와 蔑視를 받은 — 의 哲學을 여기 現代的인 角度로서 그 意義를 再照明해 보고자하지만, 그 根源이 회미한 어둠속에 잠겨 있는 以上 Nietzsche 哲學의 探索의 旅路는 그다지 容易한 것은 아닐 것이다.

危機와 動亂의 世紀라고 일컬어지는 現代에, 他意건 自意건 Geschick 된 우리는 人生에 對한 깊은 疑問과 不安의 恐怖속에서 더욱 原爆의 威脅, 世界各地에서의 끊임줄 모르는 慘酷한 武力抗爭등,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現代的 文明社會의 病根이 깊어만 가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非人間的인 너무나 非人間的인” 狀況을 眼前에 두고, 人生에 對한 깊은 懷疑와 뼈저린 絕望과 生의 不安의 念에 사로 잡히고 말게 되기 쉽다.

人生의 目標나 意義의 喪失을 告하는 「많은 訪問客 중에서 가장 기분 나쁜 訪問客」인 虛無主義가 門前에 다가와 門을 두드린다.<sup>2)</sup>

20世紀 現代를 덮고 있는 이러한 Nihilismus의 風潮는, 19世紀의 여러 文化現象을 통하여 이미 그 徵兆를 보이기 始作했다. 理性的 萬能과 人類의 無限한 進步를 믿던 近代文化는 이미 19世紀의 西歐世界에서 潛在的인 Nihilismus에 잠식되고 있었고, 그 華麗했던 浪漫主義, 個性主義, 歷史主義, 民族國家의 理念등의 內實은, 生의 衰退를 나타내는 世紀末的인 退弊的인 *décadence*의 病理에 侵犯당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論文은 1984년도 文教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해서 研究 되었음.

1) Stephans Kirche는 世界四大寺院의 하나다. Wien의 中心街에 位置하고 있다.

2) Nietzsche; “Aus dem Nachlass der Achtzigerjahre.” 小全集 3.Bd. S. 881.

Der Nihilismus steht vor der Tür: woher kommt uns dieser unheimlichste aller Gäste?

Nietzsche는 이러한 19世紀後半의 西歐文明과 徹底하게 對決하여 그 病根을 송두리째 베어내어 다가올 20世紀를 支配할 수 있는 것은 Nihilismus의 亡靈일 것이라고 豫言함으로써, 現代 西歐文明의 훌륭한 病理解剖學者로서의 그 內實을 거두었다. 이러한 Nietzsche는 現代文明에 대한 數많은 훌륭한 診斷書와 適切한 處方箋을 우리들에게 적어준 것이다.

Nietzsche는 그의 著書 「Die Geburt der Tragödie(悲劇의 誕生)」<sup>3)</sup>으로 부터 시작하여, 既存의 如何한 價値나 權威에도 사로 잡히지 않는 自由精神의 學徒로서 「Jenseits von Gut und Böse(善惡의 彼岸)」<sup>4)</sup>에 서서 「Götzen/Dämmerung(偶像의 黃昏)」<sup>5)</sup>을 正視하고, 虛無한 現實을 徹底하게 自己의 運命으로서 能動的으로 받아들여 삶으로서, 强健한 生으로 快癒하는 「Morgenröte(曙光)」<sup>6)</sup>으로 맞아 들이며, 드디어는 모든 生에 대하여 歡喜의 肯定을 體驗하려고 하는 「Übermensch(超人)」에 의한 「正午의 哲學」을 建設하려고 하였다.

「Nihilismus란 Nietzsche에 의하여 認識되고, 이미 앞서간 數世紀를 通하여 支配했고, 그리고 現在의 世紀를 規定하고 있는 歷史的 運動을 表示한 名稱이며, Nietzsche의 形而上學이다. 그 解釋을 Nietzsche는 “神은 죽었다”란 짧은 命題로 集約한 것이다」<sup>7)</sup>라고 Heidegger는 그의 著書 「Holzwege」에서 말하고 있다.

Nietzsche가 “神은 죽었다”란 말을 처음 表現한 것은 1882년에 著述한 「즐거운 科學(Die fröhliche Wissenschaft)」<sup>8)</sup>의 第3卷에서이다. 이 著書로 始作하는 Nietzsche의 길은 그의 形而上學的인 根本的 位置의 完成을 향한다. 이 著書와 計劃되었던 主著의 形成을

- 3) Nietzsche: “Die Geburt der Tragöde.” 1872年 1月 出版된 處女作이다. 拙稿, 論文, “Nietzsche의 Dionysos의 世界觀” 參照(濟大論文集, 第13輯).
- 4) Nietzsche: “Jenseits von Gut und Böse.” 1886年 7月. 副題로 Vorspiel einer Philosophie der Zukunft(將來의 哲學에의 序曲)을 붙여 自費로 出版함.
- 5) Nietzsche; “Götzen-Dämmerung.” 1888年 8月 完成. 副題로 “Wie man mit dem Hammer philosophiert.” (사람은 如何히 하여 hammer로 哲學하는가)를 붙여, 翌年 1889年 1월에 出版함.
- 6) Nietzsche; “Morgenröte.” 1881年 6월에 出版. 副題 “Gedanken über die moralischen Vorurteile.” (道德의 偏見에 關한 思想)을 붙임.
- 7) Heidegger; “Holzwege.” s. 198. Deren Auslegung nimmt Nietzsche in den kurzen Satz zusammen: “Gott ist tot.”
- 8) Nietzsche; “Die fröhliche Wissenschaft.” 1881年 10月 草稿를 쓴후, 1882年 여름 (舊版 4卷本) 完成하여 出版. 1886年 第5卷 “Wir Furchtlosen”을 脫稿. 1887年 5卷을 追加하여 新版을 出版함.

위한 헛된 勞苦와의 사이엔, 「Also sprach Zarathustra」<sup>9)</sup>의 刊行이 있다. 計劃되었던 主著는 結局 完成되지 못하였지만, 잠시동안 그것은 「Der Wille zur Macht」<sup>10)</sup>란 表題를 지니고 “모든 價値의 顛倒의 試圖”란 副題를 달 豫定이었다.

우리는 우선 「즐거운 科學」이란 著書의 125 番의 文章을 여기에 옮기기로 한다. 이 文章은 “狂氣의 人間”이란 表題가 붙어 있다.<sup>11)</sup>

狂氣의 人間 — 너희들은 저 狂氣의 人間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그 著는 밝은 午前에, 燭籠에 불을 붙이고, 市場의 廣場에 달려와 철새 없이 “나는 神을 찾고 있다! 나는 神을 찾고 있다!”라고 철새 없이 외친 인간의 일을, — 市場에는 때마침 神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서 있었는데, 그래서 그는 대단히 웃음꺼리블 惹起시켰다. 神을 紛失하였단 말인가? 라고 어떤 이는 말했다. 神은 어린아이처럼 길을 잃었던 말인가? 라고 또 다른 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神은 숨박꼭질했던 말인가? 神은 우리들이 무서웠단 말인가? 神은 海外로 가버렸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그들은 서로 웃었다. 狂氣의 人間은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쏘아 붙이는듯한 눈초리를 하고 바라보며 외쳤다. — 神은 어디에 갔는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마! 우리들이 그를 죽여버린 것이다. — 너희들과 내가. 우리들은 모두 神의 殺害者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그것을 할 수 있었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바닷물을 다 마셔 삼킬 수가 있었는가? 全地平線을 닦아 없애버릴만큼의 海綿을, 누가 우리들에게 주었는가? 이

9) Nietzsche; “Also sprach Zarathustra”: Zarathustra의 이름은 persia의 拜火教祖의 이름이지만, 여기에선 관련이 없다. 副題로 “Ein Buch für Alle und Keinen” 를 붙임.

1882年 2月 3日 ~ 13日까지 불과 10日間에 Zarathustra 第1部를 完成(6月出版). 同年 7月 第2部 完成. 1884年 第3部를 完成. 1884年 4月 第2部, 第3部를 合쳐서 出版. 1885年 2月 第4部를 完成(私家版으로 40部 印刷, 7人의 친구에게 贈)

10)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는 1882年頃부터 1888年에 걸쳐 쓰여진 遺稿이지만, 元來는 그 副題를 “Versuch einer Umwertung aller Werte” (모든 價値의 顛倒의 試圖)란 것을 붙일 豫定이었다.

11) Nietzsche; “Die fröhliche Wissenschaft.” 第3卷 125節. 小全集 第2卷 S.126~128. 原文을 挿入한다.

*Der tolle Mensch.* — Habt ihr nicht von jenem tollen Menschen gehört, der am hellen Vormittage eine Laterne anzündete, auf den Markt lief und unaufhörlich schrie: „Ich suche Gott!“ — “Da dort gerade viele von denen zusammenstanden, welche nicht an Gott glaubten, so erregte er ein großes Gelächter. Ist er denn verlorengegangen? sagte der eine. Hat er sich verlaufen wie ein Kind? sagte der andere. Oder hält er sich versteckt? Fürchtet er sich vor uns? Ist er zu Schiff gegangen? ausgewandert? so schrien und lachten sie durcheinander. Der tolle Mensch sprang mitten unter sie und durchbohrte sie mit seinen Blicken. „Wohin ist Gott? rief er, ich will es euch sagen! Wir haben ihn getötet — ihr und ich! Wir alle sind seine Mörder! Aber wie haben wir dies gemacht? Wie vermochten wir das Meer auszutrinken? Wer gab uns den Schwamm, um den ganzen Horizont wegzuwischen? Was taten wir, als wir diese Erde von ihrer Sonne losketteten? Wohin bewegt sie sich nun? Wohin bewegen wir uns? Fort von allen Sonnen? Stürzen wir nicht

大地를 저 太陽으로 부터 풀려나갈 때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가? 地球는 지금 어디로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모든 太陽으로부터 사라지는 건가? 우리들은 끝없이 墜落하여 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方向으로. 지금도 위와 아래가 있던 말인가? 우리들은 끝없는 無 속을 彷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서 부터인가 空虛한 空間의 기색이 나치 않는가? 점점 차가워진 것이 아닌가? 밤 또 밤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午前 中 부터 燭籠의 불을 붙여야만 할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神을 埋葬하는 墓의 구멍을 파는 사람들의 소음이 아직 귀에 들려오지 않는단 말인가? 神이 腐敗하는 냄새를 아직 맡지 못했던 말인가 — 神도 썩는다. 神은 죽었다. 神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를 죽인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殺害者 中의 殺害者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 스스로를 慰安할까? 世界가 이제까지 所有하고 있던 가장 神聖한 것, 가장 強大한 것은 우리들의 短劍에 찔려 피를 뿜어 썼다. 누가 우리들의 이 血痕을 씻어낼 수 있는가? 어떠한 물로 몸을 깨끗이할 수 있던 말인가? 우리들은 어떠한 儀式, 어떠한 祭技를 發明해야만 할 것인가? 이 行爲가 큰 것은 우리들에겐 너무 크지 않은가? 그 資格을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스스로 神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보다 偉大한 行爲는 전에는 결코 없었다 — 그리고 그것은 아마 우리들의 뒤에 태어날 사람들도, 단지 그 행위 때문에 이제까지의 모든 歷史보다 더 一層 높은 歷史의 一員이 되는 것이다 — 여기에서 狂氣의 人間은 沈默하고, 다시금 그의 聽衆을 바라본다. 그들도 沈默하고, 이상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고 있다. 드디어 그는 그의 燭籠을 땅에 던져버리자, 그것은 산산 조각이 나서 불은

fortwährend? Und rüchwärts, seitwärts, vorwärts, nach allen Seiten? Gibt es noch ein Oben und ein Unten? Irren wir nicht wie durch ein unendliches Nichts? Haucht uns nicht der leere Raum an? Ist es nicht kälter geworden? Kommt nicht immerfort die Nacht und mehr Nacht? Müssen nicht Laternen am Vormittage angezündet werden? Hören wir noch nichts von dem Lärm der Totengräber, welche Gott begraben? Riechen wir noch nichts von der göttlichen Verwesung? — auch Götter verwesen! Gott ist tot! Gott bleibt tot! Und wir haben ihn getötet! Wie trösten wir uns, die Mörder aller Mörder? Das Heiligste und Mächtigste, was die Welt bisher besaß, es ist unter unseren Messern verblutet — wer wischt dies Blut von uns ab? Mit welchem Wasser könnten wir uns reinigen? Welche Sühne feiern, welche heiligen Spiele werden wir erfinden müssen? Ist nicht die Größe dieser Tat zu groß für uns? Müssen wir nicht selber zu Göttern werden, um nur ihrer würdig zu erscheinen? Es gab nie eine größere Tat — und wer nur immer nach uns geboren wird, gehört um dieser Tat willen in eine höhere Geschichte, als alle Geschichte bisher war! — Hier schwieg der tolle Mensch und sah wieder seine Zuhörer an: auch sie schwiegen und blickten befremdet auf ihn. Endlich warf er seine Laterne auf den Boden, daß sie in Stücke sprang und erlosch. „Ich komme zu früh, sagte er dann, ich bin noch nicht an der Zeit. Dies ungeheure Ereignis ist noch unterwegs und wandert — es ist noch nicht bis zu den Ohren der Menschen gedrungen. Blitz und Donner brauchen Zeit, das Licht der Gestirne braucht Zeit, Taten brauchen Zeit, auch nachdem sie getan sind, um gesehen und gehört zu werden. Diese Tat ist ihnen immer noch ferner als die fernsten Gestirne — und doch haben sie dieselbe getan!“. Man erzählte noch, daß der tolle Mensch des selbigen Tages in verschiedene Kirchen eingedrungen sei und darin sein Requiem aeternam deo angestimmt habe. Hinausgeführt und zur Rede gesetzt, habe er immer nur dies entgegnet: „Was sind denn diese Kirchen noch, wenn sie nicht die Gräfte und Grabmäler Gottes sind?“

꺼졌다. “오는 것이 너무 빨랐다” — 라고 그는 말했다 — “아직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이 엄청난 事件의 報告는 途中에서 彷徨하고 있다 — 그것은 아직 사람들의 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번개나 천둥도, 星辰의 빛도, 우리들의 耳目에 닿으려면 時間이 걸린다. 이 행위는 아직 그들에게 가장 먼 天體보다도 더 멀다 —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범할 것이다.” 뒤에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이 狂氣의 人間은 같은날 여러 教會에 侵入하여, 그 속에서 神에로의 靈魂曲을 彈奏하였다 는 것이다. 끌려나와 審問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는 단지 「이미 이들 教會는, 神의 墓陵과 墓碑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이요?」라고 反問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고 한다.

4年後(1886年)에 Nietzsche 는 이 冊의 5卷에 「Wir Furchtlosen.(우리들 무서워하지 않는者)」를 添加하였다. 이 5卷의 最初의 文章에 “Was er mit unsre Heiterkeit auf sich hat.”에서 「近間的 最大의 事件 — “神은 죽었다”라고 하는것, 그것은 基督教의 神에의 信仰이 믿을수가 없는것 — 그것은 이미 全歐羅巴에 그 最初의 그림자를 던지기 시작한다」<sup>12)</sup> 라고 言及한다.

「神은 죽었다」란 말에 대하여, Heidegger 는 이것은 無神論者 Nietzsche 의 意見을 言表한 하나의 個人的인 見識에 不過하며, 따라서 一面的인 思想이고, 그럼으로 오늘날 世界의 어느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教會를 訪問하고, Christ 教의 神에로 정해져 있는 神에로의 信賴의 信念에서 가진 苦難을 견디어 나간다는 事實指摘에 의하여 쉽게 反駁된다고 推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거론된 Nietzsche 의 말은, 그가 結局 精神異常者로 되어버린 한 思想家의 所見에 불과했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問題이다. 도리어 Nietzsche 가 여기서 말한 것은, 形而上學的으로 規定된 歐羅巴의 歷史의 內部에서 明言은 되지 않았을망정 이미 告白된 말이 아닌가? <sup>13)</sup>

「“神은 죽었다”란 Nietzsche 의 말은 Christ 教의 神을 가르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미리 고려해 두어야할 일이 있다. 神과 Christ 教의 神이란 이름은 Nietzsche 의 思索에 있어서는, 超感性的 世界一般의 稱號로 쓰여진 점이다.

神이란 모든 理念과 理想의 領域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 超感性的인 것의 領域을, Platon 哲學의 末期 希臘的 및 Christ 教의 解釋以來, 참된 世界, 眞實로 現實인 世界로 보

12) Nietzsche; “Die fröhliche Wissenschaft.” 小全集 第2卷 S. 205. 參照  
“Das größte neuere Ereignis — daß “Gott tot ist”, daß der Glaube an den christlichen Gott ungläubwürdig geworden ist — beginnt bereits seine ersten Schatten über Europa zu werfen.”

13) Heidegger; “Holzwege” S. 196.

Zu fragen bleibt, ob Nietzsche hier nicht eher das Wort ausspricht, das innerhalb der metaphysisch bestimmten Geschichte des Abendlandes immer schon unausgesprochen wird.

아왔던 것이다. 이와는 區別되어진 感性的世界는, 此岸的인, 變化的인, 그러므로 단지 假現的인 非現實的世界에 不過하다. 彼岸에 있는 永遠한 淨福의 山과는 區別되어, 此岸의 世界는 歎息의 골짜기이다. …… “神은 죽었다”란 말은, 超感性的인 世界는 影響力을 喪失함을 뜻한다.<sup>14)</sup>

모든 現實的인 것의 超感性的인 根據이며, 그 目標였던 神이 죽었다면, 諸理念의 所在인 超感性的인 世界는 그 拘束力과 무엇보다도 그의 喚起力과 建設力을 喪失해버린 것이라면, 그때에는 人間은 自己를 지탱하고 自己의 指標로 해야 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므로 前述한 Nietzsche의 말처럼 “우리들은 끝없는 無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닌가”란 質問이 쓰여져 있다.

여기에서 無란 超感性的인 拘束的인 世界의 缺如를 意味한다. “모든 訪問客중에서도 가장 기분 나쁜 訪問客” 虛無主義가 門前에 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할 일은, 東洋의 佛敎哲學에서처럼, 無와 그 本質에 관하여 思索하는 사람이 모두 虛無主義者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神과 敎會의 敎職의 權威가 除去되면, 그를 대신하여 良心의 權威가 登場하고, 理性的인 權威가 스며든다. 이 理性에 反抗하여 社會的인 本能이 抬頭된다. 超感覺世界의 遁世는, 歷史的인 進歩로 代替되고, 永遠의 淨福이란 彼岸의 目標는 變하여, 最大多數者의 地上的인 幸福으로 된다. 그리고 宗教的인 祭儀의 奉仕는 文化的인 創造라던가 文明의 普及에로의 感激과 交替한다. 以前의 聖書의 神의 特性이었던 創造性은, 人間的인 營爲의 顯彰으로 된다.

Nietzsche는 1887년에 쓰여진 覺書속에서(Der Wille zur Macht. 斷片 2) “Nihilismus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란 質問을 세우고 “最高의 諸價値가 價値를 喪失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sup>15)</sup> 이 對答에는 傍點이 붙어 있고, 「目標가 缺乏되어 있다. “왜?”에 대한 답이 缺如되어 있다」란 註解的인 補充이 붙어 있다.

이 覺書에 의하면 Nietzsche는 Nihilismus를 하나의 歷史的인 過程으로서 把握하고 있다. 그는 그 過程을, 從來의 最高의 諸價値의 價値喪失로 解釋한다. 神, 眞實로 存在하여 모든 것을 規定하는 世界로서의 超感性的인 世界, 모든 存在者와 특히 人生을 規定하고 支柱할 理想과 理念, 目標과 根據, 이들 모두가 여기에선 最高의 諸價値란 意味로 表象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價値가 喪失된 것이다.

14) Heidegger; “Holzwege.” S. 200.

Das Wort “Gott ist tot” bedeutet: die übersinnliche Welt ist ohne wirkende Kraft.

15)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大全集 15卷 S.11.

Der Nihilismus ein normaler Zustand. — Nihilismus: es fehlt das Ziel; es fehlt die Antwort auf das “Warum?” — Was bedeutet Nihilismus? Dass die obersten Werte sich entwerten.

그러나 Nietzsche 는 從來의 最高價値가 世界에 있어서 그 價値를 喪失했다 하더라도 世界 그 自體는 남아 있다는 것을 認識하고, 一旦 價値에서 解放되었을 때 비로서, 沒價値의 으로 된 世界가 새로운 價値定立을 向해 부득불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認識한다. 새로운 價値定立은, 從來의 最高價値가 崩壞됨으로, 從來의 諸價値로서 보면 「모든 價値의 顛倒」로<sup>16)</sup> 變形한다. 종래의 價値에 대한 否定은, 새로운 價値定立에로의 肯定을 意味한다. Nietzsche 에 의하면, 이 肯定속에서는 從來의 價値와의 如何한 媒介나 調停도 許容치 않는다.<sup>17)</sup> 이 새로운 價値定立에로의 肯定속에는 無條件한 否定이 품어 있다. 從來의 價値에로의 復歸에 對하여 새로운 肯定의 非妥協性을 確保하기 위해선, Nietzsche 는 이 새로운 價値定立 마저도 Nihilismus 라고 稱하고 있다. 卽 이 Nihilismus 란, 價値喪失을 完成하여 새로운 오직 標準的인 價値定立을 이루게 하는 Nihilismus 인 것이다. 이것을 그는 “完成된” Nihilismus 라고 칭한다.<sup>18)</sup>

Nietzsche 의 解釋에 의하면 Nihilismus 란 어디까지나 하나의 歷史이며, 그 속에서 여러가지의 價値, 價値評價, 價値의 喪失, 價値의 反對評價, 價値의 新定立이 問題가 되고, 그리고 結局엔 根本的으로, 모든 價値定立의 原理 그 自體의 새로운 價値定立이 問題로 되는 歷史인 것이다.

最高의 諸目標, 存在者의 根據와 原理, 理性和 超感性界, 神과 神들 — 이들 모두를 처음부터 價値로서 把握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들은, Nietzsche 가 價値란 것을 어떻게 解釋하고 있었는가를 알때, 비로소 Nietzsche 의 Nihilismus 의 概念을 充分히 把握할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비로소, “神은 죽었다”란 말을 그가 思考한 대로의 意味로서 理解하게 된다.

天才的인 文獻學者로서 學究生活을 始作한 Nietzsche 의 ironical 한 言語表現의 뒤에 숨어 있는 眞意와, 斷片的인 aphorism 속에 內包되어 있는 根源的眞理의 全體像을, 正確히 把握하고 理解하려면 그의 片言雙語를 注視하고, 그 根本體驗을 Nietzsche 와 함께 追體驗해 나갈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Nietzsche 는 이러한 眞摯한, 誠實한 讀者에 의하여 理解되기를 바랐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向해서 말할려고 했다.

이러한 態度로 Nietzsche 를 接할때, 所謂「眞理」나 「道德」을 憎惡하여, 그것들의 彼岸

16)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의 副題 “Versuch einer Umwertung aller Werte” 를 말한다.

17)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道德의 系譜學)의 副題 “Eine Streit-schrift” (論爭의 書). 1887年 7月 完成. 11月 自費出版. 第3部 24節. 小全集 第2卷 S.888 ~ 891 參照.

18)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大全集 15卷 21節 參照 Der vollkommen Nihilist

에 설려고한 Nietzsche가, 實은, 얼마나 眞摯하게 眞理를 希求하고 道德에 殉職하려고한 誠實한 思想家였으며 哲學家였다는 것을 알수가 있을 것이다.

Nihilismus의 本質과 出現의 領域은 形而上學 그 自體다. 단, 여기에서도 우리들은 形而上學이란 이름으로 어떤 哲學敎說이라던가, 더욱 哲學의 特殊部門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存在者가 感性的世界와 超感性的世界와는 差別되며, 前者가 後者에 의하여 지탱되고 規定되어진다는 存在者全體에 거친 根本構造를 念頭에 두고 있는 것이다.

形而上學이란, 超感性的世界, 理念, 神, 道德律, 理性的權威, 進步, 最大多數者의 幸福, 文化, 文明이, 그들의 建設力을 喪失하고 空虛하게 된다는 것이, 그 內部에서 運命的으로 일어나는 歷史空間이다.

이 超感性的인 것의 崩壞는, 그 本質喪失을 뜻한다. 基督敎的 信仰敎義로부터의 轉落이란 意味로서의 不信仰은, 決코 Nihilismus의 本質과 根據가 아니고, 언제나 그 歸結에 不過한 것이다.

왜냐하면, 基督敎 그 自體가 아마도 Nihilismus의 한 歸結이며 完成形態를 나타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神은 죽었다”란 意識과 함께, 從來의 最高價値의 根本顛倒의 意識이 始作한다.

人間自身이 이 意識에 따라 一層 더 높은 별개의 歷史속으로 移行한다. 그 속에서 모든 價値定立의 原理인 “힘”(Macht)에의 意志가 明白히 現實의 現實性으로서, 모든 存在者의 存在로서 經驗되고 또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에로의 無條件的인 意志의 執行者로서 意志한다. 標準의 諸價値의 衰亡은 끝났다. “最高價値가 價値를 喪失한다”란 것은 Nihilismus가 克服된 것이다.

自己自身の 人間存在를 “權力の 意志”로서 意志하고, 그리고 이 人間存在가 全體에 걸쳐 “Der Wille zur Macht”에 의하여 規定되어진 現實性에 所屬되고 있음을 經驗하는 人間類型은, 從來의인 人間을 뛰어 넘는 人間의 本質的 形相에 의하여 規定되어 지는 것이다.

從來의인 人間型을 넘어선 本質的 形相을 나타내는 이름은 “超人”이다. Nietzsche가 「“Übermensch”라고 부르는 것은, 普通 우리가 아는 人間能力이나 意圖가, 巨大하게 擴大·高揚되어 있는 人間의 個個의 標本이란 말도 아니다. Nietzsche의 “超人”이란 말은, 近世의 人間類型으로서 그의 時代의 本質的 完成의 領域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人間의 本質을 指稱한 것이다. 「그러나 “超人”을 생각하는 Nietzsche의 思想은 存在者를 存在者로서 存在論的으로 思惟하고, 스스로 形而上學의 本質에 副應하면서도 形而上學의 內部에서 그 本質



을 캐내지 못한 思惟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Heidegger 는 말한다<sup>19)</sup>

人間의 本質이 어떤 意味로서 存在의 本質에서 規定되어지는가는, 여전히 숨겨져 있다. 그러므로 Nietzsche 의 形而上學에 있어서는 “權力の 意志”와 “超人”의 本質과의 사이의 本質的 連關의 根據가 必然的으로 덮혀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숨겨져 있다손치더라도, 그 속엔 무엇인가 나타나는 그 무엇이 脈動하고 있다. 存在者의 本質(essentia)인 힘에의 意志에 所屬하는 現存(existentia)은, 같은 것의 “永遠回歸”<sup>20)</sup>이다. 그 속에서 생각된 存在는, 超人의 本質에로의 關係를 內包하고 있다. 그러므로 超人을 Zarathustra 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思索이 形而上學의 本質과 어떤 連關을 맺고 있는가가, Nietzsche 自身에 있어서도 어둠속에 숨겨져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人을 위한 책이며 또 그 누구를 위한 冊도 아니다”란 副題가 달린 “Also sprach Zarathustra”란 著作도 著作으로서의 性格이 어둠에 가리워져 있다.

Nietzsche 에 의하면 “價値”란 「生命體의 保存·上界의 條件에 관한 解釋觀點」이며<sup>21)</sup> 價値를 客觀的으로 測定하는 尺度가 되는것은 「上昇하여 組織화된 權力만이다」.<sup>22)</sup>

그리고 「生이란 權力の 意志이다」<sup>23)</sup>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生의 實體를 이루는것, 「더 以上の 것이 되고, 더 강한 것이 될려고 하는 意慾」을 意味하는 「權力の 意志」야말로, 本來의 價値定立의 主體이며, 價値의 高下를 決定하는 評價規準이기도 하다 란 것이 되고 만다.

단순한 生에로의 努力하여 마지 않는 「權力에로의 意志」야말로 超人을 志向한 새로운 價値의 原理이어야만 한다.

여기서 「權力」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政治權力이나 武力들과 같은 物理的 強制力を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無限한 可能性을 내세워, 一切의 凝固停滯를 突破하여 向上할려고 하는 根源的인 內的生命力 그 自體인 것이다.

그리고 道德的 價値評價도, 그 「權力意志」가 내리는 하나의 解釋方法에 不週함으로, 그것은 단지 生을 위한 것이지, 그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道德을 위한 道德때문에 人生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道德至上主義」는, 「目的과 手段의 價値顛倒」를 惹起

19) Heidegger; “Holzwege” s. 233.

Nietzsches Gedanke, der den Übermenschen denkt, entspringt aus dem Denken, das ontologisch das Seiende als das Seiende denkt und sich so dem Wesen Metaphysik fügt, ohne doch dieses Wesen innerhalb der Metaphysik erfahren zu können.

20) 拙稿論文; “Nietzsche 의 Dionysos 의 世界觀” 參照(濟大 論文集 第 13 輯).

21)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斷片 382, 715.

22) Nietzsche; ebd. 斷片 674.

23) Nietzsche; ebd. 斷片 254.

하는 것으로서, 嚴格히 排斥한다.<sup>24)</sup>

이러한 立場에서 Nietzsche는 「善惡의 彼岸」이나 「道德의 系譜學」에서 生와의 聯關에서 遊離되고 自立化한 抽象觀念으로서의 「善과惡」에 代身하는 새로운 善惡概念을 提示한다.

“神은 죽었다”란 말은, 神 自身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眼前에서 自發적으로 멀리 사라져버렸다는 말이라면, 그 意味를 理解하기는 쉬울 것이다. 그런데 神은 다름아닌 人間의 손에 의하여 殺害되었다라고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수가 없는 일이다. Nietzsche 自身도 이 思想에 놀라고 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이 그를 죽인 것이다. 너희들과 내가. 우리들은 모두 그의 殺害者다”란 決定的인 말의 바로 뒤에 狂氣의 人間은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할수 있었는가”라고 도리어 質問하고 있다. Nietzsche는 이 質問의 內容을 세가지의 比喩로 다시 바꾸어 물음을 거듭하여, 그 물음을 註解하고 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바닷물을 다 마셔 삼킬 수가 있었는가? 全地平線을 닦아 없애버릴 만큼의 海綿을 누가 우리들에게 주었는가? 이 大地를 저 太陽으로 부터 풀러나갈때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 最後의 물음에 대해선, 人間이 太陽으로 부터 풀러나갈 때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가? 는, 最近三世紀半의 歐羅巴의 歷史를 말하는 것이라하고 對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歷史의 根本에 있어서, 무엇이 存在者의 身上에 일어났는가? Nietzsche가 太陽과 地球의 關係를 學論할때, 그는 近世의 自然觀에 있어서의 Kopernikus의 轉回만을 思考한 것은 아니다. 太陽이란 이름은, 同時에 Platon의 比喩를 想起시킨다. 太陽과 그 빛이 이르는데는, 存在者가 그 모습, 그 形相(Idea)에 應하여 現出되는 範圍를 말 하는 것이다.

太陽은 存在者가 存在者로서 顯出하는 視界를 形成하고 그 地平을 그린다.

文章中の 「地平」이란 말은, 眞實로 存在하는 世界로서의 超感性的世界를 指摘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同時에 모든것을 包容하여 그 속에 집어 넣는 바다와 같은 全體者이다. 人間의 住居地로서의 大地는, 太陽으로 부터 遊離되었다. 本然의 모습으로 存在하는 超感性的인 것의 領域은, 이제 標準的인 빛으로서 人間의 위엔 배풀어 지지를 잃는다. 視界全體가 抹消되었다. 存在者로서의 存在者의 全體는, 바다는, 人間에 의하여 마셔져 말라버렸다. 왜냐하면 人間은 *ego cogito*의 自我性속에서 蜂起한 것이다. 이 蜂起와 함께, 모든 存在者는 對象이 된다. 存在者는, 客觀的인 것으로서 主觀性的인 內在속에 吸飲된 것이다. 地平은

24) Nietzsche; ebd. 斷片 354.

이미 그 自體가 비치여 지지를 않는다. 그것은 이미 權力の 意志의 價値定立에 있어서 定立된 視點에 지나지 않는다.

어젠, 狂氣의 人間이, 「설새없이, 나는 神을 찾는다, 나는 神을 찾고 있다」라고 외친 소리를 우리들의 귀에 흘러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덜 미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非現實로 된 超感性界의 理想과 反對의 것이 實現되고 있는데, 그 理想을 現實의인 것으로 言述하고 있는 從來의 人間의 平面에선, 밖으로 逐出된 것이다.

이 덜 미친 사람은, 從來의 人間들보다는 越出하다. 또한 그는 그를 둘러싸고 바라보는 “神을 믿지 않는” 大衆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 傍觀者들이 不信仰인 것은 神이 神으로서 그들에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때문이 아니라, 그들 自身이 이미 神을 求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信仰의 可能性마저도 廢棄해버렸기 때문이다.

廣場의 傍觀者들은 思索을 廢棄하고, 代身 長廣舌을 늘어 놓았다. 여기에 비하면, 狂氣의 人間은 그 文章의 最初의 몇줄에서 더 一層 確信을 가지고 神을 向해 絶叫하면서 神을 求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sup>25)</sup>

一個의 思索者가 眞實로 深淵에서 부터 絶叫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의 思索의 귀는 어떤가? 그 絶叫이 아직 귀에 들리지 않는가?

思索하지 않는한 아마 그 絶叫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몇 世紀동안 主로서 崇仰했던 理性이야말로 思索의 가장 執拗한 敵對者란 것을 우리들이 알아 차릴때, 비로서 思索이 始作된다.<sup>26)</sup>

Nietzsche 는 當時 社會各層의 冷待와 蔑視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살을 에이는 듯한 寂寞과 孤獨속에서도 虛無主義와 格鬪를 거듭, 드디어 그 自身마저도 精神異常者가 되어 버려 Nihil 한 精神의 暗黒속에서 悲劇의인 너무나 悲劇의인 生涯를 끝맺었다.

그러나 Nietzsche 는 이러한 悲劇의인 人生을 甘受하여 삶으로서, 現代人の 生이 衰退한 décadence 現象을 이루고 潛在的인 Nihilismus 의 業病에 潛蝕될 것을 警告하여 앞으로 올 世紀가 Nihilismus 의 顯在化의 時代가 될 것이란 豫言을 하였다.

Nietzsche 의 豫言은 不幸하게도 的中하였다. 表面的으로는 繁榮을 자랑하던 資本主義經濟는 20 世紀에 들어서자마자 恐慌現象을 되풀이하였고, 深刻한 社會問題를 露出하였다. 權力機溝로서의 國家는 그 內部에서 激化하는 階級鬪爭을 시습치 않아 國民的인 統一의 基

25) Heidegger; “Holzwege” S. 246.

26) Heidegger; Holzwege” S. 247.

Das Denken beginnt erst dann, wenn wir erfahren haben, daß die seit Jahrhunderten verherrlichte Vernunft die hartnäckigste Widersacherin des Denkens ist.

盤을 喪失하고, 힘의 均衡에 의하여 維持되었던 國際平和는 資源과 市場의 爭奪을 둘러싸고 帝國主義戰爭의 爆風속으로 消滅하여 간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時代의 深刻한 病弊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특히, 第1次 世界大戰은 科學的合理에 對해 期待했던 樂天的인 信賴感을 부셔버리고, 基督教文化世界의 統一과 發展이란 西歐人들의 希望을 粉碎한다.

그리하여 Spengler의 “Untergang des Abendlandes” (西歐의 沒落)<sup>27)</sup>이 提起한 警告는 많은 西歐人들에 깊은 共感을 喚起시켜 思想界에 大論爭을 惹起시켰다.

第1次大戰에 의하여 불러일으켜진 不安과 虛無의 思念은, 第2次世界大戰에 의하여 더욱 普遍化되고 同時에 深刻化되어, 世界의 모든 사람들은 不安과 絶望의 도가니 속으로 집어 넣게 된 것이다.

Nietzsche는 Nihilismus와 格鬪하여 그를 넘어서서 다시금 人間의 尊嚴을 되찾으려고 無斷히도 애를 썼고, 荒涼한 이 생을 삶의 充溢과 發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 事實이 現代人에겐 이제 明白하게 되었다.

이 課題를 스스로의 使命으로 自負하고, 그 課題解釋을 위하여 誠實一路·眞實一路의 險峻한 孤獨의 길을 걸어간 이가 바로 Nietzsche 였던 것이다.

Nietzsche의 言說을 現代人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別個의 問題이지만, 現代人으로서의 問題의 提起者로서의 Nietzsche를 無視하고서는 現代思想과 現代文化를 論할수 없을 것이란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20世紀 現代에 들어서면서 그 옛날엔 그렇게도 冷待했던 그를 이제는 많은 이들로부터 注目되기 시작했고, 특히 第2次世界大戰 以後의 現代에선, 實存主義와 關聯하여 더욱 그 重要性이 再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Nietzsche는 眞理를 위해선 무엇이든 犧牲하여 조금도 後悔하지 않는 誠實의 德을 기른 것은 基督教道德이다 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徹底하게 反抗함은 다름아닌 彼岸的인 神에로의 反抗이다 라고 「道德系譜學」과 「權力의 意志」에서 말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Nietzsche에 있어서 基督教은 얼마나 重大한 것이 었던가를 다음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27) Spengler; “Untergang des Abendlandes” (2 Bde. 1918 – 1922)  
Umriss einer Morphologie der Weltgeschichte.  
Bd. I, Gestalt und Wirklichkeit, 1918.  
Welthistorische Perspektiven, 1922.

28)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第3論文 27節과 “Der Wille zur Macht”  
斷片 1.5를 參照.

「나는 基督教徒의 貧血한 理想에 宣戰을 布告하여 왔지만…… 그 意圖는 그것을 絶滅시킬려고 한것이 아니고 그 暴政을 끝내게 하고 새로운 理想을 위해서 더욱 썩썩한 理想 때문에 活動의 場을 바꿀려는 것이었다.…… 基督教 理想의 永續은 있을 수 있는 것중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의 하나며, 더욱 그것은 基督教理想과 나란히 아마도 그보다 더 넘어서 抬頭하려고 하는 諸理想을 위해서이다. — 그리하여 나 無道德家는 道德의 權力을 必要로 한다. 나의 自己保存衝動은 우리들의 敵對者가 언제나 힘이 세지기를 바란다 — 이 衝動은 우리들의 敵對者를 支配하는 主로 되려고 欲求하는 것이다」<sup>29)</sup>

즉, Nietzsche 는 生을 저버리고 彼岸에 逃避하고, 사랑의 實踐을 同情의 說教로 代身하고, 內心的 現實로서 體驗해야 할 天國을 죽음·復活에의 待望과 罪에 對한 贖罪等 教義를 變質시키려고 하는 僧侶의 禁欲 Dogma 에 反撲하는 것이지, 基督教가 걸러낸 誠實性이나 實踐性에 對하여서는 깊은 敬意마저 나타낸 이다.

Nietzsche 는 “道德의 系譜學”에서 말한다. 「나는 新約聖書를 좋아 안한다.…… 그러나 舊約聖書는 — 그렇다. 그것은 全然 別個의 것이다. 舊約聖書에 對해서 모든 敬意를 나타내라! 나는 그속에서 偉大한 사람들, 하나의 英雄的 風景을 그리고 地上에 있어 실로 드문 現象을, 즉 강한 心情的 比類할 수 없는 素朴함을 發見한다」.<sup>30)</sup>

또 Nietzsche 는 말한다. 「확실히 新約聖書는 無垢하지는 않다」<sup>31)</sup> 라고 “權力的 意志”에서, 또 「그러한 不潔한 新約聖書를 읽을 때는 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라고, 그의 著書 「Antichrist」에서 말한다.<sup>32)</sup>

그러나 여기에서 非難되고 있는 것은 사랑의 實踐家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死後의 復活”의 豫約販賣者로 만들어 버린 教會教義의 創始者 Paulus 의 彼岸主義를 非難한 것이다.

이러한 教義的 教會中心의 基督教은 예수 自體가 가장 싫어 했던 것이고, 예수마저도 否定하고, 反基督教的으로 보는 것이다.<sup>33)</sup>

Nietzsche 가 教會의 이름으로 彈劾하는 것은 生에로의 誠實한 奉仕와 實踐家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犧牲死와 復活의 解釋에 의하여 彼岸의 祭壇에 現實의 生을 犧牲으로서 捧身한 使徒 Paulus 이였고<sup>34)</sup> 大坦·卒直한 生의 高貴함에 등을 돌린 Martin Luther 의 改革宗教였다.<sup>35)</sup>

29)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斷片 361 參照.

30) Nietzsche; “Zur Genealogie der Moral” 第3 論文 22 節

31)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斷片 199 節 參照.

32) Nietzsche; “Antichrist” 46 節.

— Was folgt daraus? Dass man gut tut, Handschuhe anzuziehn, wenn man das Neue Testament liest.

33)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 158 - 171 節 參照.

34) Nietzsche; “Antichrist” 41, 42 節 參照.

35) Nietzsche; “Antichrist” 61 節.

이러한 그의 基督敎批駁의 根底에 흐르고 있는 것은, 사랑의 福音들의 否認은 아니고, 敎會僧侶에 의한 僞裝된 怨恨感情의 宗教로서 墮落한 敎會宗教에르의 潔白한 反感의 念이라고 할 수 있다.

Theodor Steinbüchel 도 「Friedrich Nietzsche 의 著作은 Christ 者에 있어 깊은 意味를 지니고 있다. …… Nietzsche 와의 만남은 Christ 者와 自己에 對한 神의 부르짖음이고, 良心의 起床信號이다. 基督敎者는 Nietzsche 와 같은 眞摯한 人間을 不注意하게, 특히 바리새 敎人들처럼 自己가 眞理를 所有하고 있다는 氣分으로 無視해 버리려고 애써도 안되며,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다.

만일 基督敎의 人間이 Christ 者로서의 自己의 生活에 의하여 다음을 實證하려고 하는 責任에 눈을 뜬다면, 그 때는 Nietzsche 도 또한 神의 나라에 奉仕하는 者일 것이다. 그것은 더 깊은 生을, 더 높은 純粹한 人間性을 覺醒케 하는 자는 兩者 중에서 그 누구일까? 란 것이 된다.

Dionysos 인가, 그렇지 않으면 十字架에 못 박힌 자인가?」<sup>36)</sup> 라고 著述하고 있다.

Nietzsche 의 反道德主義, 反彼岸主義의 立場을 展開한 思想, 卽 道德이나 理念을 위한 人生이 아니고, 人間이 그 生의 充實·發展을 究極의 價値와 眞理로 하려고 하는 “生의 哲學”은 Simmel,<sup>37)</sup> Dilthey,<sup>38)</sup> 등에 의하여 繼承되고 發展되었다.

특히 生의 內的要求에 誠實하고, 이를 價値定立의 原理로 하려는 Nietzsche 의 思想은, Schweitzer 의 「生命畏敬의 倫理」로서 아름다운 結晶을 이루었다.

Schweitzer 는, Nietzsche 의 “權力の 意志”가 지니고 있는 Egoistik 한 側面을 純化하여 “宇宙的 生命意志”로까지 擴大·深化하였고, 또 敎會道德이 지닌 僞善性이나 彼岸性에 對한 Nietzsche 의 批判精神을 받아들여 生의 充實·發展의 표시로서 사랑의 實踐을 指向하는 것이 참된 基督敎라고 하는 確信을 가지고 Afrika 의 未開地에서 人道主義의 理念과 實踐을 展開하다 殉職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Nietzsche 의 創造的破壞의 權力意志가 生命再建의 實踐으로 되 살아나고, 人道의 復活을 準備하기 위하여 감히 스스로 否定者·破壞者의 立場에 그 自身의 몸을 옮겨 놓은 것을 Schweitzer 가 Nietzsche 思想이 지닌 肯定的인 面을 훌륭히 定著시킨 분

36) Steinbüchel; “Friedrich Nietzsche. — Eine christliche Besinnung (世界文學大系 ニーチェ. 所藏. 國松孝二譯) 筑摩書房 昭和35年.

37) Simmel; “Schopenhauer und Nietzsche.” 1907. “Lebensanschauung.” 1918. 등 參照.

38) Dilthey; Gesammelte Schriften. 1913. 參照.

이다라고 하여도 별다른 異論이 없을 것이다.

人間의 主體性的 權威의 確立을 志向하여 主體的眞埋를 渴求하여 마지 않았던 Nietzsche의 自由探究의 精神을 繼承하여 Nihilismus의 밑 바닥에 까지 潛入하여, 거기에서 永遠에로의 活路를 打開해 나가려고한 能動的 Nihilismus의 立場은 限界狀況의 한 가운데에 있는 自己의 主體的인 存在方式에 따라 絶對의 眞埋와 自由에 살려고 하는 것은 實存主義에로 具體化되어 갔다.

實存主義者 Jaspers나 Heidegger의 哲學은 Nietzsche와의 精神的對決로 의하여 產出된 것이다.

특히 西洋二千年의 形而上學의 歷史는 存在忘却의 歷史로 規定되고, 希臘의 詩人哲學者들이 表現한 바와 같은 自然의 根元에로 歸鄉하는 것이 Nihil에 苦惱하는 現代人の 魂을 治癒하기 위해선 急先務라고 主張하고, Nietzsche에 관한 二千面에 달하는 두卷의 著書까지 마련한 Heidegger의 見解中에는 現代에 있어서의 “Nietzsche의 再來”를 聯想케 한다.

모든 固定的인 定見을 벗어나 眞埋나 價値를 生의 發展과 相對的으로 매듭지으려는 Nietzsche의 認識論은 事象 그것에 副應하여 그 本質을 把握하려는 現象學派의 哲學에 接續하여 간다.

특히, Nicolai Hartmann의 現象學的 倫理學의 思想속에는 Nietzsche에서 引繼받은 貴重한 遺産들을 수 없이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絶對主義的인 思考의 偶像崇拜의 偏見을 拒否하고, 人間精神의 自由로운 創造性을 重視하는 Nietzsche의 Moralistic인 人間探究의 精神은 現代에 훌륭한 作家들의 創作活動에 至大한 影響을 주었다. 獨逸의 Georg, Rilke, Hermann Hesse, Thomas Mann, 戰後의 作家 Wolfgang Borchert, Heinrich Böll 들의 作品이나, 佛蘭西의 André Gide, André Malraux 등의 作品은 Nietzsche와의 對話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作品들이다.

특히, Thomas Mann의 作品에서 Nietzsche의 體臭를 강하게 느끼게 한다. Thomas Mann의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1918), Vorspruch zu einer musikalischen Nietzsche-Feier(1925), Lebens-Abriß(1930), Nietzsches Philosophie im Lichte und Erfahrung(1947)에서라던가 또한 作品名마저도 Nietzsche 著書의 題目과 類似한 것이 많다.

예컨대, Der Wille zum Glück는 Nietzsche의 Der Wille zur Macht와 Betrachtungen eines Unpolitischen은 Nietzsche의 Unzeitgemässe Betrachtungen 등과 對照를 이루고,

또한 Der Zauberberg는 Nietzsche의 Die Geburt der Tragodie를 聯想시킨다.

그리고 作品構成의 技法에서도 Nietzsche의 價値觀點(Point-de-vue-Gedanke)에 의한 Perspektivismus(遠近法主義)를 Doppeloptik(二重視覺)으로 Wechselnde Optik의 形式을 쓰고 있는 점들이다.

獨逸에서 追放된 Hermann Hesse도 自我省察를 통한 Demian(1919), Siddarth(1922), 그리고 自我探究와 더불어 現代文明을 批判하고 유럽을 彈劾한 Der Steppenwolf(1927), 그리고 靈魂의 벗이 精神과 感覺의 世界를 彷徨하는 Narzis und Goldmund(1930), 晩年の 大作 Das Glasperlenspiel(1948), 또한 그의 評論集 戰爭과 平和(彷徨하는 現代) — 그속의 “Zarathustra 再來”等, 그의 作品은 한결같이 文明批判과 精神의 失御, 靈魂의 彷徨, 自我喪失, 文明의 沒落이 Hesse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Nietzsche의 影響이라 할 수 있다.

Nietzsche는 Marxist이건 實存主義者건, 그 누구라도 人間性的의 否定·破外를 招來하는 자라면 그 누구와도 싸워 人間의 尊嚴을 지키고 普遍的人道의 理念에 一貫하여 살려고 애쓰는 모든 Humanist에 대해서도 貴重한 示唆와 激勵을 供與해준 것이다.

Nietzsche는 現代에 있어서도 Humanist의 先驅者이며, 드높은 名譽스러운 戰士며, nihilismus의 撲滅運動의 先頭 旗手란 點에는 아마 그 누구도 反論을 提示 못할 것이다.



**Zusammenfassung**

**Die gegenwärtige Erleuchtung  
für  
Nietzsches Philosophie**

*Kim Boh-kyum*

Nietzsche hat das Wort "Gott ist tot" zum ersten Mal im dritten Buch der 1882 erschienenen Schrift "Die fröhliche Wissenschaft" ausgesprochen. Mit dieser Schrift beginnt der Weg Nietzsches zur Ausbildung seiner metaphysischen Grundstellung.

Haben wir bisher Nietzsche als Atheist, Nihilist, Antichrist und Im-Moralist betrachtet? Dies ist ein Problem. Einen Denker achten wir nur, indem wir denken. Dies verlangt, alles Wesentliche zu denken, was in seinem Gedanken gedacht ist.

Was vormals in der Weise von Ziel und Mass das Menschenwesen bedingte und bestimmte, hat seine unbedingte und unmittelbare und vor allem überallhin unfehlbar wirksame Wirkungsmacht eingebüßt. Jene übersinnliche Welt der Ziele und Masse erweckt und trägt das Leben nicht mehr. Jene Welt ist selbst leblos geworden: tot. Christlicher Glaube wird da und dort sein. Aber die in solcher Welt waltende Liebe ist nicht das wirkend-wirksame Prinzip dessen, was jetzt geschieht.

Der übersinnliche Grund der übersinnlichen Welt ist, als die wirksame Wirklichkeit alles Wirklichen gedacht, unwirklich geworden. Das ist der metaphysische Sinn des metaphysisch gedachten Wortes "Gott ist tot".

Was ist das Denken in Werten der reine Nihilismus? Aber Nietzsche begreift doch die Metaphysik des Willens zur Macht gerade als die Überwindung des Nihilismus. In der Tat, solange der Nihilismus nur als die Entwertung der obersten Werte verstanden und der Wille zur Macht als das Prinzip der Umwertung aller Werte aus einer Neusetzung der obersten Werte gedacht wird, ist die Metaphysik des Willens zur Macht eine Überwindung des Nihilismus.

Und der tolle Mensch hat unaufhörlich geschrien: "Ich suche Gott! Ich suche Gott!" Vielleicht hat da ein Denkender wirklich die profundis geschrien? Und das Ohr unsres Denkens? Hört es den Schrei immer noch nicht? Es wird ihn solange überhören, als es nicht zu denken beginnt.

Nietzsches Fragment geliebtes Hauptwerk des "Willens zur Macht", das die wesentlichen Probleme des 19. Jahrhunderts im Sinne des 20. Jahrhunderts sieht und beantwortet, enthält bereits alle Aufgabe der nächsten hundert Jahre.